

아프리카인들의 투표행태 분석: 종족투표 대 경제투표

조 원 빈 | 성균관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과 조교수

아프리카 신생민주주의국가에서 유권자들이 선거에서 정당 혹은 후보자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일까? 본 연구는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에 속한 16개 신생민주주의국가들에서 수집한 여론조사 데이터를 이용해 아프리카인들의 투표행태를 분석한다. 1990년대 초부터 이 지역의 대다수 국가들은 민주주의 이행을 경험했고, 이들 중 적지 않은 수의 국가들이 지난 20년 동안 다수의 정당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형태의 선거를 정기적으로 치러왔다. 민주주의 정치체제를 구성하는 여러 요소들 중 선거는 핵심적 요소이다. 특히, 다수의 정당들이 참여하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통해 유권자는 정치 엘리트를 상대로 책임성과 대표성을 구현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아프리카인들의 종족투표 행태와 경제투표 행태를 살펴봄으로써 아프리카 유권자들이 자신들의 지지 정당이나 후보를 선택할 때 책임성과 대표성 중 어느 하나에 더 중점을 두는지, 그렇지 않으면 두 메커니즘 모두를 중요시하는지의 여부를 위해 로짓 통계모형을 이용해 분석한다. 이를 통해 본 논문은 민주주의 이행을 통해 도입된 정기적인 선거에서 아프리카인들이 대표성을 구현하는 종족투표 행태뿐만 아니라 유권자와 정치 엘리트를 긴밀히 연결시켜 책임성을 구현하는 경제투표 행태도 동시에 보여준다는 것을 발견했다. 아프리카인들은 자신이 속한 종족 출신이 정부수반일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확연히 여당 투표 의향이 강했다. 그리고 자신의 일상적인 생활환경이 향상되었다고 생각하는 아프리카인일수록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들보다 더 여당 투표 의향이 강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주제어: 종족투표, 경제투표, 책임성, 대표성, 아프리카

I. 서 론

1990년대 초부터 아프리카 대륙에도 민주화 물결이 몰아쳤다. 특히, 사하라 사막 이남에 속한 국가들 중 민주주의 이행을 경험했던 다수의 국가들은 복수의 정당이 참여하는 선거를 도입했고 지난 20년 동안 정기적으로 선거를 치러왔다. 물론 말리나 마다가스카르에서 최근 벌어진 군부 쿠데타의 사례처럼, 이들 중에는 선거 도입 이후 종족 혹은 정파 간의 갈등이 첨예해져 다시 권위주의 체제로 퇴행하는 국가들도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년 현재 이 지역 다수의 국가는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하고 있다. 이들 국가에서 점차 복수의 정당이 참여하는 선거가 민주주의 정치 체제를 구성하는 주요한 한 요소가 되고, 다소 형식적인 수준이지만 시민들이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고 있다.

본 연구는 아프리카 시민들이 투표할 때 과연 사회 구성원의 대표성(representation)을 중요시하는지 혹은 민주주의가 공고화된 국가들에서 관찰되는 책임정치(accountability)의 구현을 추구하는지를 여론조사 데이터를 이용해 분석하려 한다. 사회 구성원의 대표성 측면에서는 아프리카인들의 종족 투표(ethnic voting) 행태를, 책임정치 측면에서는 그들의 경제투표(economic voting) 행태에 초점을 맞춰 분석하고자 한다.

민주주의 이행을 20년 전에 경험했고 현재 복수의 정당들이 참여하는 선거를 정기적으로 치르고 있는 아프리카 국가들은 대부분 다수의 종족들로 구성되어 있다. 예를 들어, 지난 2007년 대통령선거 이후 종족갈등을 경험했던 케냐의 경우, 다양한 규모의 70개가 넘는 종족들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아프리카지역의 정치를 분석대상으로 하는 다수의 연구들에서는 종족(ethnicity) 변수가 강력한 설명변인들 중 하나로 여겨진다(Horowitz, 1985; Norris and Mattes, 2003; Posner, 2005; Lindberg and Morrison, 2008). 이 연구들은 유권자들이 선거에서 후보자나 정당을 선택할 때 자신의 종족에 대한 소속감이 미치는 영향력이 유권자들의 경제적 상황에 대한 평가가 미치는

영향을 압도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실제로 이 지역에 속한 대통령 당선자들이 소수종족 출신인 경우가 많다는 사실은 아프리카 시민들의 투표행태를 종족투표만으로 설명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그 대안으로, 일부 아프리카 정치학자들은 유권자들이 지지후보를 선택할 때 현 정부의 업적에 대한 평가가 그들의 종족에 대한 소속감보다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Bratton et al., 2005; Young, 2009). 그러나 1990년대 민주주의 이행 이후 이 지역의 경제상황이 크게 향상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들의 재선률이 높은 것을 볼 때(Lindberg, 2006), 과연 유권자들이 경제투표 경향을 보이는지도 불분명하다. 이처럼 아프리카인들의 투표 행태를 분석대상으로 하는 서로 다른 연구 경향이 합의에 이르는 아직 요원하므로 좀 더 광범하고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민주주의 이행 이후 헌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복수의 정당들이 참여하는 선거가 계속 이어짐으로써 아프리카인들의 투표행태에 대한 연구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아프리카인들의 투표행태를 연구대상으로 하는 대부분의 기존 연구들은 하나의 특정국가의 경험적 사례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대표적인 예로 가나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Lindberg and Morrison(2005, 2008)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이에 비해 본 연구는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에 속한 아프리카 신생민주주의국가들 중 비교적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다수의 정당이 참여하는 선거를 중단 없이 연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16개 국가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분석을 행한다. 물론, 본 연구의 대상 국가들이 신생민주주의 국가들이므로 그 연구 결과가 이 지역 전체를 대변한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에 속한 다수의 신생민주주의국가들에서 벌어지는 투표행태를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본 연구 결과는 한 나라를 분석 대상으로 하는 기존의 연구 결과들과 차별되며 좀 더 이 지역의 투표행태에 대한 광범위하고 일반화 수준이 높은 분석결과를 보여 줄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된다. 우선, 투표행태에 대한 기존 논의를 살펴보고 아프리카인들의 투표행태를 종족투표 행태와 경제투표 행태를 중심으로 설명하는 가설들을 제시한다. 둘째, 주어진 가설을 경험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통계모형을 소개하고 그 모형의 분석 대상인 데이터도 설명한다. 셋째,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통계모형인 위계 로짓모형의 결과를 제시하고 그 의미를 해석한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이 아프리카인의 투표행태에 대해 발견한 것을 정리하고 그 함의를 제시하도록 한다.

II. 이론적 논의와 연구가설 정립

아프리카 신생민주주의국가들에서 유권자들이 자신의 한 표를 행사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은 무엇일까? 1990년 이후 민주주의 이행을 경험했던 사하라 사막 이남의 44개 아프리카 국가들은 복수 정당의 참여가 이루어지는 선거를 도입했다(Bratton and van de Walle, 1997; Lindberg, 2006). 그러나 모든 국가들이 동일한 방향으로 민주주의 정치체제의 안정화를 달성하지는 못했다. 가나와 케이프 베데처럼 어느 정도 민주주의 정치체제를 안정화하는데 성공한 경우가 있는 반면, 마다가스카르나 말리처럼 군사 쿠데타를 경험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2007년 케냐 대통령선거 이후 벌어졌던 종족간의 갈등뿐만 아니라 나이지리아에서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종교간, 지역간 갈등들을 주목하면서, 아프리카의 많은 정치 지도자들과 일부 정치학자들은 아프리카에서 선거는 여전히 시기상조이며 오히려 종족간의 분열만 초래할 뿐이라고 비판하기도 한다(Sisk and Reynolds, 1998; LeBas, 2006).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 정치체제에서 선거는 일반 시민과 정치 지도자를 연결해주는 주요수단들 중 하나이다. 특히, 신생민주주의국가에서 투표란 일반 시민이 자신의 이해관계를 표현할 수 있고 국가적 수준의 정책결정과정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비폭력적인 유일한 수단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아프리카의 투표 행태에 대한 연구는 아프리카 정치의 역동성을 이해하는데 간과할 수 없는 핵심분야라 하겠다.

1. 선거의 책임성: 경제투표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 중 복수 정당이 참여하는 선거의 중요성에 문제를 제기할 정치학자는 그리 많지 않다.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통해 일반 시민들은 정치 엘리트를 상대로 책임성(accountability)과 대표성(representation)을 구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책임성을 강조한다는 것은 투표자가 정책결정자에게 직접적인 통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데 중점을 둔다(Powell, 2000). 이 경우, 투표자는 정치엘리트의 자율성을 신뢰하는데 소극적이다. 투표자가 선출한 정치엘리트가 무엇을 하든 믿어주기보다 그가 약속한 것들을 제대로 이행하는지에 더 관심을 갖는다. 또한 책임성을 강조하는 투표자들은 정기적인 선거를 통해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정책결정과정에서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정치엘리트들을 교체하려 한다. 이러한 경향은 선거를 통해 당선된 대통령이나 의회의원들로 하여금 차후 선거를 의식하게 만들고, 유권자들의 이해를 반영해 그들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를 파악하여 정책을 결정하도록 만든다. 마찬가지로 일반 유권자들도 특정 정책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관심을 갖게 되고 그 정책의 산물에 대한 자신의 주관적 평가 혹은 만족 정도가 미래의 정책결정자를 선택하는데 직접적인 기준으로 삼는다. 이러한 정치엘리트들의 투표자에 대한 책임성을 강조하는 투표행태의 한 요소로 경제투표를 고려할 수 있다.

경제투표에 대한 논의는 그 동안 많이 축적되어왔다(전용주 외, 2009). 유권자가 경제투표를 한다는 것은 현재 경제 상황이 좋으면 투표자가 집권여당이나 그 후보에 투표를 하고 그렇지 않으며 대안으로 야당에 투표하는 경향을 말한다(Key, 1964; Tufte, 1978; Lewis-Beck and Stegmaier, 2000). 즉, 선거의 승리가 유권자가 평가하는 경제 상황에 달려있다는 것이다.

최근 경제투표에 대한 교차국가 연구들은 주로 정치제도의 영향력에 관심을 두고 있다(Lewis-Beck and Stegmaier, 2000). 이들 연구는 대체로 정치제도가 경제상황에 대한 집권여당의 책임성을 분명히 하는지 여부에 그 초점

을 맞추고 있다. 이미 민주화가 확고히 자리잡은 서유럽의 경우 이러한 정치 제도들이 경제투표 경향에 미치는 영향이 분명하지만, 아프리카 신생민주주의국가들에게서도 이러한 공식적인 정치제도의 영향력이 분명히 나타날 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한편, 여론조사 데이터를 기반으로 투표행태를 분석하는 연구들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돈지갑 투표(egotistical pocketbook voting) 경향보다 사회경제적 투표(sociotropical voting) 성향이 강하다고 주장한다(Kinder and Kiewiet, 1981; Lewis-Beck, 1988). 즉, 유권자들이 자신의 표를 행사할 때 개인적 경제상황에 대한 자신들의 평가보다 사회 전체적인 경제상황에 대한 평가에 더 강조점을 둔다는 것이다. 또한 몇몇 연구들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투표할 때 회고적 투표(retrospective voting) 성향보다 전망적 투표(prospective voting) 성향이 강하다는 결과를 얻었다(Price and Sanders, 1995; Hesli and Bashkirova, 2001). 서유럽과 같이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공고화된 정치체제에서 이루어진 경제투표에 대한 기존의 경험적 연구 결과들이 과연 아프리카의 신생민주주의국가들에서 유권자들에게 적용 가능할지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미국의 투표행태를 연구한 논문(MacKuen et al., 1992)에 따르면, 투표자의 행태를 소농(a peasant)과 은행가(a banker)라는 두 유형으로 분류한다. 소농은 가난과 근시안적인 요구를 중시하기 때문에 “가장 최근까지 당신은 나를 위해 무엇을 해 주었나?”에 초점을 두고 투표하는 경향이 있다. 대부분 소농에 속한 아프리카 유권자들은 가난하고 생활에 필요한 많은 것들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경제적 투표 성향보다 돈지갑 투표 성향을 보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사회경제적 투표나 돈지갑 투표를 위해서 투표자는 실질적으로 경제 상황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대부분 가난하며 교육수준이 낮고 농촌에 살고 있는 아프리카 투표자들이 자신의 개인적인 경제적 삶이 아니라 국가 수준의 경제 상황에 대한 변화를 감지하는 것이 쉽지 않다. 따라서 기존의 서구 중심적 투표행태 연구와 달리, 본 논문은 아프리카의 투표자들은 사회경제적 투표 성향보다 돈지갑 투표 행태를 보일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2. 선거의 대표성: 종족투표

민주주의 정치체제의 중요한 요소인 선거를 통해 실현할 수 있는 또 다른 요소가 대표성(representation)이다. 대표성을 강조하는 주장들은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는 무대에서 모든 시민들이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전제한다. 즉, 민주주의 정치체제가 선거를 통해 다수만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이나 이해관계를 비교적 공평하게 반영하는 체제로 이해한다. 정치엘리트가 투표자의 이해관계를 잘 대변한다는 대표성을 강조하는 시각에서 볼 때, 유권자는 선거라는 수단을 통해 이루어진 다수를 그리 신뢰하지 않는다. 반면 대표성을 강조하는 유권자들은 자신들이 선출한 정치엘리트들의 자율성에 좀 더 많은 신뢰를 갖는다. 투표자들은 자신들이 선거를 통해 선출한 정치엘리트들이 협상을 통해 이루어내는 정책결정에 어느 정도 만족해한다. 이 경우 선거의 기능은 투표자에게 정치엘리트들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력을 주는 게 아니라, 정치엘리트들에 대해 간접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수단으로 이해된다(Powell, 2000).

이처럼 대표성을 강조하는 시각은 선거의 주된 기능을 정책결정과정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공평하게 반영될 수 있는 기반을 형성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책임성을 강조하는 시각에서 선거란 다수의 이해관계가 어디에 있는지를 묻는 일회성 행사인 반면, 대표성을 강조하는 시각은 선거 이후 정치엘리트들이 가능한 많은 사회구성원을 만족시킬 수 있는 정책결정을 위해 협상하는 과정을 보다 중요시한다.

아프리카의 많은 국가들이 다수의 종족(혹은 부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신생민주주의 국가들의 비교적 짧은 선거 경험은 종족투표가 선거에서 대표성을 실현하는 한 수단으로 작동한다. 아프리카에서 종족이란 정체성은 사회뿐만 아니라 정치를 구성하는 주요 원리의 하나로 받아들여진다(Horowitz, 1991; Berman, Eyoh and Kymlicka, 2004). 본 논문에서 종족(ethnicity)이란 개인들이 자신이나 타인들을 문화적 기원에 기반을 두어 정의하려는 경향을 의미한다. 초기 연구들에 따르면, 투표자들이 자신과 동일

종족인 후보자나 자신의 종족을 대변하는 정당을 지지하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권자의 종족 일체감이 투표행태를 결정한다고 주장했다(Horowitz, 1985). 즉, 투표율이 매우 높고 모든 투표자들이 자신의 종족에 기반을 둔 특정 정당에만 투표할 경우, 그 선거는 투표가 아니라 “인구조사” 수준의 기능을 수행한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이러한 논의는 다수의 종족으로 구성된 신생민주주의 국가들에서 정치적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적절한 선거제도에 대한 논쟁으로 이어졌다(예를 들어, Lijphart, 1991; Horowitz, 1993; Reynolds, 1995; Reilly, 2001). 여기에서도 종족 일체감이 투표행태를 결정하는 것으로 전제하고, 어떤 선거제도가 종족갈등을 줄일 수 있는가에 논쟁의 초점을 맞췄다.

한편, 최근 활발히 전개되는 종족 일체감의 역할에 대한 연구들은 종족 일체감이 선거 혹은 투표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데 조금 상이한 접근을 시도한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의 최근 선거가 ‘인종 분포도(racial census)’로 비춰지는지에 대한 페리(Ferree, 2006)의 연구는 기존의 정체성 표현이라는 가설과 더불어 또 다른 두 가설들을 함께 검증한다. 그 중 종족에 대한 구성주의적 접근에 따르면, 종족이란 개념은 원생적(primordial)이거나 인간 본연의 것과는 거리를 두고 있다고 한다. 즉 종족이라는 정체성은 변할 수 있으며 구성되어 질 수 있는 것으로, 인간이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에 맞춰 다수의 정체성들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일 뿐이라고 정의한다. 예를 들어 찬드라(Chandra, 2004)와 포즈너(Posner, 2005)에 따르면, 투표자들은 복수의 다면적인 종족(예를 들어, 개인은 자신의 인종을 비롯해 종교, 언어, 지역 등 다양한 종족 요소를 내재하고 있다)을 보유한 존재이며 주어진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하나를 선택한다. 따라서 정치인이나 정당들도 유사한 방식으로 다면적인 종족의 특성들 중 한 측면만을 강조한다는 것이다.

잠비아(Zambia)의 정당정치 발전 역사를 연구한 포즈너(2005)는 특정 정치 제도가 잠비아 국민들이 보유한 다면적인 종족 구성요소들 중 좀 더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효과적으로 정치에 반영할 수 있는 요소를 선택하게 함으로써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보여줬다. 따라서, 아프리카 정치에서 시민들이 느끼는 종족이라는 정체성은 그들의 주관적 인식으로부터

출발하며 여론을 형성하고 투표 등의 정치적 행동을 조장하는데 중요한 기반이 된다고 하겠다.

본 논문이 연구대상으로 하는 종족투표(ethnic voting)라는 현상은 선거과정에서 특정한 문화집단의 구성원들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그들의 지지를 몰아줄 때 발생한다(Wolfinger, 1965). 다시 말해, 문화집단 구성원들이 집단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 투표하는 경향을 의미한다. 종족투표의 논리는 국가의 하부 집단들이 강한 연대를 표현함으로써 그 집단의 문화적 기반을 공유하는 지도자들을 대통령 등 국가의 최고권력에 앉히거나 다수의 의원들을 의회로 보냄으로써 그들의 집합적 대표성을 획득하는데 있다(Lever, 1979; Horowitz, 1985; Ferree, 2006; McLaughlin, 2008).

III. 연구모델

본 논문은 아프리카 신생민주주의 국가들에서 관찰되는 투표행태를 분석하기 위해 아프로바로메터(Afrobarometer) 여론조사 데이터를 사용한다. 기존의 투표행태 연구가 주로 가장 최근 선거에서 응답자가 투표했는지 여부에 집중해왔음에 비해, 본 연구는 응답자의 투표 의향(intended vote choice)에 초점을 맞춘다. 설문지에서 응답자는 다음과 같은 질문에 답하게 된다. “만약 내일 대통령선거가 있다면, 어느 정당 후보를 선택하겠습니까?” 선거, 특히 대통령선거에서의 승패가 가져오는 결과가 확연히 구분되는 아프리카 정치 현실에서 이러한 질문은 매우 민감하다. 더욱이, 이 지역의 정치엘리트들은 선거 승리를 위해 선거규칙을 무시하거나 대표행위마저 불사한다. 물론 유권자들에게 비밀투표가 보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는지 두려워하거나, 혹은 특정 후보를 지지하도록 압력을 받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설문 문항은 응답자의 투표 선택을 자신의 의견을 비롯해 그가 속한 종족, 나이, 성별 등 다양한 요소들과 일치시켜 줌으로써 본 연구를 가능하게 한다.

〈표 1〉 아프리카 16개국의 정부수반과 그들의 출신 종족, 2005년

국가	정부수반	정부수반의 종족(혹은 부족)
베냉(Benin)	Matthieu Kerekou	Bariba
보츠와나(Botswana)	Festus Mogae	Tswana
가나(Ghana)	John Kufuor	Akan
케냐(Kenya)	Mwai Kibaki	Kikuyu
레소토(Lesotho)	Pkalitha Mosisili	Sotho
마다가스카르(Madagascar)	Marc Ravalamonana	Merina
말라위(Malawi)	Bingu wa Mutharika	Lomwe
말리(Mali)	Amadou T. Toure	Peul
모잠비크(Mozambique)	Armando Guebuza	Changana
나미비아(Namibia)	Hifikepunye Pohamba	Ovambo
나이제리아(Nigeria)	Olusegun Obasanjo	Yoruba
세네갈(Senegal)	Abdoulaye Wade	Wolof
남아프리카공화국(South Africa)	Thabo Mbeki	Xhosa
탄자니아(Tanzania)	Benjamin Mkapa	Makua
우간다(Uganda)	Yoweri Museveni	Nyankole
잠비아(Zambia)	Levy Mwanawasa	Lenje

본 연구의 종속변인인 여당 투표 의향(intended vote for the ruling party)은 더미변수(dummy variable)로 다음과 같이 번호를 부여했다. 설문 응답자가 현 집권여당에 투표할 의향을 가졌다고 답한 경우에 숫자 1을, 그렇지 않은 경우에 숫자 0을 부여했다.

독립변인들 중 종족 정체성(혹은 일체감) 변수는 다음과 같은 설문 항목을 이용했다. “당신은 어느 부족(tribe)에 속하십니까?” 물론, “부족”이란 단어가 엄밀하게 학문적이라 할 수 없지만, 아프리카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단어로 아프로바로메터가 이 단어를 도입한 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다. 찬드라(2004)와 포즈너(2005)의 주장처럼, 본 연구에서도 종족 정체성에 대한 구성주의적 접근을 따른다. 위 질문에 대한 응답자의 답변이 정부수반(대통령 혹은 수상)의 종족(혹은 부족)과 일치한 경우 숫자 1을 부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0을 부여했다. 아프리카에서 종족이 정치적으로 주요한 이슈로 등장하는 것은 다수의 종족들 중 특정 종족이 국가의 정부수반을 배출함으로써 정치권력에 비교적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된다는 전제에서 비롯된다(Fearon et al., 2007).

〈표 1〉은 본 연구의 대상인 사하라사막 이남 16개국에서의 2005년 당시

정부수반과 그들이 속한 종족에 대한 정보를 보여준다. 아프리카 선거에서 종족 정체성이 주요 변수로 등장함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대상인 16개국들 중 한 특정 종족이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는 오직 보츠와나(79%), 레소토(99%) 그리고 나미비아(50%) 3개국뿐이다. 아프리카지역에서 종족투표가 지배적 현상이라면, 다수의 정부수반은 선거의 승리를 위해 다른 종족과의 연대를 모색해야 한다.

회고적 투표 성향의 하나인 돈지갑 투표 성향을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설문 항목을 사용한다. “12개월 전과 비교해 당신의 일상적인 삶의 환경을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이 문항에 주어진 답변은 다음과 같다. “아주 나빠졌다”, “나빠졌다”, “변함없다”, “좋아졌다”, “아주 좋아졌다”. 이 답변 순서에 맞추어 개인적 경제사정 변화 변인의 코드는 1(아주 나빠졌다)에서 5(아주 좋아졌다)로 주어진다. 회고적 투표 성향의 다른 하나인 사회경제적 투표 성향을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는 “당신은 12개월 전과 비교해 우리나라의 경제사정을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라는 설문 항목을 이용한다. 응답자의 답변도 앞서 개인적 경제사정 변화 변인과 마찬가지로 1(아주 나빠졌다)에서 5(아주 좋아졌다)로 코드를 조작했다.

본 논문은 아프리카인들의 회고적 투표 성향과 더불어 그들의 전망적 투표 성향도 분석대상으로 한다. 전망적 투표 성향도 회고적 투표 성향과 마찬가지로 개인적 경제사정에 대한 전망과 국가의 경제사정에 대한 전망으로 나누어 변인들을 조작했다. 이를 위해 사용된 설문항목은 “당신은 12개월 후 당신의 가정(우리나라)의 경제사정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봅니까?”이다. 응답자들의 답변은 1(아주 나빠질 것이다)에서 5(아주 좋아질 것이다)로 코드를 조작했다.

이 밖에도 본 논문은 통제변인의 하나로 정당일체감을 모델에 포함시켰다. 이를 위해 두 개의 설문 문항들을 이용했다. 우선, 응답자에게 어느 특정 정당에 대해 친밀감을 느끼는지 여부를 물었다. 이 문항에 대해 “그렇다”고 답한 이들에 한해 그 다음 질문에서 자신이 선호하는 정당을 선택하도록 했다. 야당에 대해 정당일체감을 느낀다고 답하는 응답자는 1로, 아무 정당에도 일체감을 느끼지 않는다고 응답한 이들에게는 0로, 여당에 대해 정당일체감을

갖는 이들을 1로 코드를 조작했다.

아프리카 정치를 대상으로 하는 다수의 연구들은 아프리카인들의 정당일체감을 중요한 변인으로 다루어왔다(Moehler, 2009; Cho, 2010). 이는 정당들 사이의 정강이나 이념적 차이가 분명하기 때문이 아니다. 미국이나 여러 선진국들의 경우처럼, 아프리카인들이 특정 정당에 대해 심리적 일체감을 보유하는 것도 아니며 이러한 정당일체감이 부모들로부터 젊은 세대에 전이되는 것도 아니다. 다만 아프리카의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특정 정당이나 그 후보에게 투표를 한다는 것은 그들이 사는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무엇인가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정치인을 고르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정당은 아프리카인들에게 과연 어느 정당출신의 후보가 당선가능성이 높은가와 그 후보가 이 지역구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가에 대한 주요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는 것이다.

본 논문은 또 다른 통제변인으로 정부수반에 대한 일반인들의 지지도도 포함시켰다. 응답자들은 자신의 대통령이나 수상이 지난 1년 동안 그들의 업무를 잘 수행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항목에 대해 1(아주 못마땅하다)에서 4(적극적으로 승인한다)로 답했다. 정부수반의 업무수행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응답자일수록 여당에 투표하려는 경향이 강하리라 생각한다. 이 밖에도 설문지 응답자의 나이와 교육수준, 성별, 거주지역(도시, 시골)에 대한 통제변인들도 통계모델에 포함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 다루는 여론조사 데이터는 16개국에서 수집되었다. 이 국가들의 민주주의 발전 정도가 다양하므로 본 논문은 통계분석 모델에 그 수준을 통제하기 위해 Freedom House Index 2005를 포함시켰다. 통계분석 모델에서는 정치권리(political rights)와 시민자유(civil liberties) 두 측정값의 평균값(1-7)을 이용한다.

1. 분석 모델: 위계 로짓모델

본 논문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구조는 두 가지 수준들로 이루어진다. 하나

는 개인 수준의 여론조사 데이터와 다른 하나는 국가 수준의 데이터? 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여론조사에 참여한 개인 응답자들의 특성 요인과 그들이 속한 국가의 특성 요인을 파악함과 동시에 국가간 비교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위계선형모델(Hierarchical linear model: HLM)을 도입한다. 이 중 본 연구의 종속변인이 명목척도이므로, 위계 로짓모델(Hierarchical logit model)을 사용한다(Raudenbush and Bryk, 2002).

위계선형모델은 다층모델(Multi-level model)이라고도 불리며 서로 다른 수준 즉, 개인 수준과 국가 수준간의 분산(variance)을 동일한 모델에서 분리하여 분석하고 각 수준의 기여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 본 논문의 경우처럼 분석의 대상인 데이터 구조가 다층적일 경우 위계선형모델은 개인 수준의 예측 변인뿐만 아니라 그보다 상위에 있는 국가 수준의 변인을 구분하고, 동시에 분석모델에 포함시켜 종속변인을 예측함으로써 기존의 선형회기분석모델보다 향상된 통계분석 모델을 제시한다. 여기서 사용하는 임의 효과(random effect)는 임의절편 모델(random intercept model)로, 개인 수준의 독립변수의 계수는 모든 국가 수준에서 동일하지만 선형 그래프상 절편은 국가 수준에 따라 다르다고 가정한다.

IV. 분석 결과

본 연구는 아프리카인들의 투표성향이 종족투표 중심인가 아니면 경제투표 중심인가를 분석하기 위해 아프리카지역의 신생민주주의 16개국들로부터 수집된 여론조사 데이터를 이용하고 있다. 따라서 데이터 구조는 개인적 수준과 국가적 수준 모두를 포함하며, 응답자들은 자신들의 국가에 포함되어 있다. 우선, 본 논문의 종속변인인 아프리카인들의 여당 투표 의향이 개인적 수준과 국가 수준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분산이 존재하는지 살펴본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분산분석(analysis of variance)을 이용해 개인 수준의 분산과 국가 수준의 분산을 구분하고 비교한다.

〈표 2〉 분산분석(ANOVA) 결과

Parameter	Estimate
고정효과(fixed effects)	
상수항	0.019 (0.213)
분산 (variance components)	
국가 수준	0.724** (0.258)
개인 수준	3.29 (fixed)a
-2 log likelihood	29012.694
사례수	
국가 수준	16
개인 수준	23093

주: **: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함

a. 위계 로짓모델에서 개인 수준의 잔차 분산(variance of the residual)은 계산되지 않는다. 여기서 잔차 분산 값은 $\pi^2/3=3.29$ 로 가정한다.

〈표 2〉의 분산분석 결과는 여당 투표 의향의 전체 평균값인 최대우도측정치(maximum likelihood estimate)와 수준별 분산값을 보여준다. 국가 수준의 분산값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 결과에 따르면, 데이터 구조가 16개국에서 수집된 여론조사 데이터이고 본 연구의 종속변인인 여당 투표 의향이 국가들 간에 뚜렷한 차이가 존재하므로 통계분석에서 이러한 차이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즉, 위계 로짓모델을 이용해야 한다. 분산분석 결과는 개인 수준의 분산이 모델 전체의 분산의 82%(3.29/(0.724+3.29))로 국가 수준의 분산에 비해 커다란 부분을 차지함을 보여주고 있다.

〈표 3〉은 아프리카인들의 여당 투표 의향을 설명하는 요인들을 분석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는 아프리카 신생민주주의국가에 살고 있는 시민들이 종족투표 경향뿐만 아니라 경제투표 경향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다만, 여러 경제투표 경향들 중 아프리카인들은 회고적 돈지갑 투표 성향이 강했다.¹ 〈표 3〉은 위계 로짓모델의 계수뿐만 아니라 이 계수가 무엇

1. 동일한 개인수준 변인들을 포함한 로짓모델을 이용해 16개국 개별 여론조사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비슷한 경향을 보여줬다. 각 계수의 크기는 다양했지만, 14개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종족투표 경향이 발견되었으며 13개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회고적 돈지갑 투표 성향이 발견됐다.

〈표 3〉 아프리카인들의 여당 투표 의향 요인 분석 결과

독립변인	위계 로짓모델 계수 및 표준오차	Odds Ratio
고정효과(fixed effects)		
<i>개인 수준 변인</i>		
종족 정체성 (정부수반 종족) 회고적 경제상황 개인적 수준	0.218** (0.057)	1.244
사회경제적 수준	0.068* (0.029)	1.071
전망적 경제상황 개인적 수준	0.022 (0.028)	1.022
사회경제적 수준	0.027 (0.032)	1.028
사회경제적 수준	0.031 (0.031)	1.032
정당일체감	2.679** (0.041)	14.569
정부수반 업무성과 지지	0.421** (0.027)	1.524
나이	-0.008** (0.002)	0.992
교육수준	-0.026* (0.013)	0.974
성별 (여성 = 1)	-0.056 (0.045)	0.945
도시 (= 1)	-0.219** (0.049)	0.803
상수	-1.973** (0.469)	0.186
<i>국가 수준 변인</i>		
민주주의 수준 (FHI)	0.036 (0.148)	0.965
분산(variance components)		
국가 수준	0.307 (0.114)	
개인 수준	3.29 (fixed)	
-2 log likelihood	13535.145	
사례수		
국가 수준	16	
개인 수준	17674	

주: 분석은 Stata 12를 사용하였고 계수 추정 방식은 한정최대우도추정법(restricted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을 사용하였다. *, **: 유의 수준 0.05, 0.01에서 유의함.

을 의미하는지 실질적인 값을 알아보기 위해 오즈비(odds ratio)도 함께 포함하고 있다.

위계 로짓모델 결과에 따르면, 종족 정체성과 경제상황 중 유일하게 개인적 수준의 회고적 경제상황만이 아프리카 시민들의 여당 투표 의향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 독립변인의 오즈비는 1.24이다. 즉, 대부분 다수의 종족들로 구성된 아프리카 16개 신생민주주의국가에 살고 있는 아프리카 시민들은 정부수반, 즉 대통령이나 수상이 자신의 종족 출신인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여당에 투표할 가능성이 1.24배 높았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대다수 아프리카 국가들이 수많은 종족들로 구성되어 있어 정부수반이 속한 종족이 전체 국민의 절대 다수를 점하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다. 따라서, 선거에서 다수의 지지를 필요로 하는 대통령이나 수상은 자신들의 종족뿐만 아니라 다른 종족과의 연대가 불가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권자의 시각에서 보면, 자신이 속한 종족 출신이 정부수반인 여당에 투표하려는 경향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확연히 강했다. 이러한 경향은 다수의 아프리카 국가들에서 동일한 종족들이 동일한 지역에 모여 살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종족 출신의 정부수반이 그 지역의 발전에 많이 기여했던 것을 직접 목격할 수 있었으며 앞으로도 그러리라는 기대에서 이처럼 강한 종족투표 성향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남아프리카에 속한 나미비아의 2009년 대통령선거와 의회선거는 종족투표 경향을 확연히 보여준다. 1990년 독립을 쟁취한 후 현재까지 비교적 자유롭고 공정하다고 평가 받는 선거를 통해 South West Africa People's Organization(SWAPO) 정당이 계속해서 집권해 왔으며 의회의 대부분의 의석을 차지해 왔다. 2009년 선거에서 SWAPO의 대통령선거 후보이면서 당시 대통령이었던 Hifikepunye Pohamba가 득표율 75.25%로 재선에 성공했다. 역시 여당인 SWAPO는 동시에 치러진 의회선거에서 득표율 74.3%로 전체 72개 의석 중 54개 의석을 획득했다. 나미비아는 다종족 국가로 오밤보(Ovambo) 종족이 전체 인구의 50%를 차지한다. 두 번째로 규모가 큰 카방고(Kavangos) 종족이 9%를 헤레로(Herero) 종족인 7%, 다마라(Damara) 종족이 7%, 나마>Nama) 종족이 5%를 차지한다. 이 밖에도 여러 소수 종족들

이 나미비아 사회를 구성하고 있다. 여당인 SWAPO는 나미비아 북부지역에 주로 거주하며 전체 인구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오밤보 종족을 그 지지 기반으로 한다. 따라서, 오밤보 종족이 지금까지 보여 주었듯이 이념이나 정책이 아닌 단순히 종족으로써 자신들을 대변하는 여당에 투표하는 종족투표를 고집하면, 어느 정당도 SWAPO를 누르고 선거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없다. SWAPO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나미비아 정당들은 정책이나 이념보다 종족을 그 기반으로 하며 정기적으로 치러지는 선거를 통해 이들 소수 정당들은 종족을 중심으로 정치적 지지를 이끌어내는 경향이 더욱 강해지고 있다 (Melber, 2010).

본 논문은 두 번째 가설인 아프리카인들의 경제투표 행태를 검증하기 위해 회고적 경제상황과 전망적 경제상황 각각에 대해 개인적인 수준과 사회경제적 수준으로 나누고, 이들 네 가지 상황에 대한 응답자의 주관적 평가가 여당 투표 경향에 통계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네 가지 중 한 가지, 즉 개인적이면서 회고적인 경제상황에 대한 응답자의 주관적 평가가 종속변인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아프리카인들은 돈지갑 투표 행태를 보였다. 12개월 전과 비교해 자신의 일상적 삶의 환경이 향상되었다고 판단하는 아프리카인일수록 여당 투표 의향이 강했다. 이 독립변인의 오즈비는 1.07이다. 즉, 개인적 경제상황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를 측정한 변인이 한 단위 증가함에 따라 종속변인인 아프리카인들의 여당 투표 의향은 1.07배 늘어난다. “아주 좋아졌다(=5)”고 응답한 아프리카인은 “아주 나빠졌다(=1)”고 응답한 아프리카인에 비해 정부여당에 투표하려는 경향이 4배 이상 강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외 경제투표 행태를 살펴볼 수 있는 다른 독립변인들의 종속변인에 대한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처럼 회고적 돈지갑 투표 행태가 강하다는 발견은 다른 지역에서 관찰된 경제투표 행태와는 상이하다. 아프리카 이외의 지역에서 이루어졌던 경제투표 행태에 대한 다수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유권자들은 자신의 표를 행사할 때, 개인적인 경제상황보다 사회경제적인 경제상황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해왔다. 반면, 아프리카인들은 대부분 경제적으로 궁핍하며 교육수준도 비교

적 낮고 문맹률이 높아 국가 수준의 경제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정도가 매우 낮다. 또한 경제상황에 대한 정보 수준도 낮고 이러한 정보를 이해하는 수준도 낮아 일반인들이 전망적 경제투표 행태를 보일 가능성은 더 낮은 것이다. 반면 아프리카인들은 개인적인 수준의 경제상황의 변화에 대해서는 비교적 더 민감하며 이러한 변화를 주관적으로 평가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다. 이러한 환경에서 아프리카인들이 돈지갑 투표 행태를 보이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다.

2008년 가나의 대통령선거는 아프리카인들의 돈지갑 투표 행태를 잘 보여 준다. 이 선거를 통해 2000년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해 8년을 집권해왔던 여당인 New Patriotic Party(NPP)이 야당인 National Democratic Congress(NDC)에 정권을 넘겨주었다. 가나 시민들이 왜 정권교체를 선택했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여러 요인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지난 8년간 여당이었던 NPP가 유권자들에게 약속했던 것을 들 지키지 못 한 것에 대한 실망감이 컸다(Whitfield 2009). 예를 들어, 시민들의 생활비는 계속 상승했는데 직업을 구할 기회나 임금 수준은 변함없었다. 또한, 2006에서 2007년 사이 발생했던 전력공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전력공급 합리화 조치를 단행했지만, 일반 시민들이 그 혜택을 누리기에는 정부의 조치가 너무 늦었다. 뿐만 아니라, 재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자주 석유가격과 전기 사용료를 인상해, 일반 시민들의 가계에 큰 부담으로 이어졌다. 따라서, 지난 두 번의 선거에서 야당의 대통령 후보로 출마해 패배했던 John Atta Mills가 특별히 새로운 공약이 없이 세 번째 출마해 당선될 수 있었다.

정당일체감 역시 아프리카인들의 여당 투표 의향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는 아프리카인들의 정당일체감에 대한 기존 연구들의 경험적 결과와도 일치한다(Moehler, 2009; Cho, 2010).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정당일체감의 오즈비가 14.57로 본 연구의 통계모델에 포함되어 있는 독립변인들 중 가장 크다. 정부여당에 대해 친밀감을 느끼는 이는 어떠한 정당에도 친밀감을 느끼지 않는 이들에 비해 14배 이상으로 강하게 여당 투표 의향 행태를 보인다.

아프리카 신생민주주의 국가들의 비교적 짧은 민주주의 경험으로 대부분

의 정당들은 선진민주주의 국가들과 달리 정책이나 이념적으로 분명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대다수 정당들은 종족이나 국가적으로 존경을 받는 ‘큰 어른(big man)’을 중심으로 형성된다. 물론 세네갈처럼 정당이 종족이나 종교 중심으로 구성되는 것을 헌법으로 금지하거나, 나이지리아처럼 대통령으로 당선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지역과 다양한 종교집단들에서 골고루 지지를 획득하도록 헌법에 명시함으로써 종족 중심의 정당 설립을 제한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 이행 이후 다수의 정당이 참여하는 선거를 지속적으로 경험해온 이 지역의 유권자들에게 정당은 그들이 선호하는 정당이나 후보를 선택하는데 매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정당은 유권자들이 자신의 투표 결정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데 드는 비용을 최소한으로 줄여줄 수 있다. 즉, 유권자가 선거에 참여하는 다수의 정당들이나 입후보자들의 수많은 정강정책들을 일일이 살펴볼 시간과 노력을 줄여 준다. 정당의 이미지를 통해 유권자들은 어느 정당이 자신의 이해관계를 가장 잘 대변해 줄 수 있는지 비교적 쉽게 평가할 수 있다.

정부수반의 업무수행에 대한 아프리카인들의 주관적 평가도 그들의 여당 투표 의향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 변인의 오즈비는 1.52로 자신이 속한 국가의 대통령이나 수상이 지난 1년 동안 수행한 업무에 대해 “적극적으로 승인한다”(=5)고 대답한 아프리카인은 단지 “승인한다”(=4)고 응답한 이보다 정부여당에 투표하려는 경향이 1.5배 이상 높다. 이러한 결과는 선진민주주의 국가들의 유권자 투표행태를 분석하는 연구들에서 발견된 결과들과 일치한다. 이 결과는 간접적이기는 하지만, 본 연구의 대상인 아프리카 16개 국가들이 신생민주주의 국가들이면서도 불구하고 민주주의 이행 이후 중단 없이 이어지고 있는 다양한 선거를 통해 아프리카인들이 점차 특정 정당이 중심이 되는 정권과 그보다 상위 개념인 민주주의 정치체제를 구분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과거 잦은 쿠데타와 정권의 붕괴가 정치체제의 붕괴로 이어지는 현상에 익숙했던 아프리카인들에게 선거를 통해 이루어지는 정권교체는 새로운 경험이었다(Cho and Logan, 2009). 정기적인 선거는 오늘의 승리가 다음 선거에서의 승리를 장담할 수 없으며 패배한 정당이나 그 지지자들에게도 다음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여당 지지자뿐만 아니라 야당 지지자들의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정당성과 체제에 대한 신뢰를 강화시켜 준다.

이 밖에도 위계 로짓모델의 결과는 나이가 많은 아프리카인이 젊은이에 비해 여당 투표 의향 정도가 낮은 것을 보여준다. 이는 본 연구가 기대했던 결과와는 다르다. 앞에서 지적했듯이, 이념적 차별성이 덜 뚜렷한 이 지역 정당체제의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본 연구는 전반적으로 보수적인 기성세대가 젊은 세대에 비해 여당 투표 의향이 높을 것으로 기대했었다. 젊은이들에 비해 나이가 많은 아프리카인들이 낮은 여당 투표 의향을 보이는지에 대해 앞으로 좀더 체계적으로 분석해야 할 주제이다. 다만, 기성세대들이 민주화 이후 등장한 젊은 세대들에 비해 새로운 정치체제에 대한 만족도나 기대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아 정부여당에 대한 만족도가 낮고 이는 낮은 여당 투표 의향으로 연결된다고 추정할 수 있겠다.

또한, 교육수준이 높은 아프리카인일수록 교육수준이 낮은 이들에 비해 여당 투표 의향이 낮았다. 교육수준이 높은 아프리카인일수록 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고 정부의 다양한 정책 내용들에 대한 이해 정도도 높다. 그러므로 교육수준이 높은 이들은 정부 정책내용이나 수행에 대한 정보들을 비교적 많이 획득할 수 있으며 정부에 대한 기대 수준도 높아, 교육수준이 낮은 이들에 비해 정부 정책들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비판적 시각들이 여당 투표 의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라 하겠다.

본 연구의 로짓 위계모델이 발견한 흥미로운 사실은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의 농촌지역 거주 아프리카인들이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이들보다 여당 투표 의향이 강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과거 한국의 투표행태 분석에서 자주 등장했던 ‘여촌야도’ 현상과 유사하다(윤천주, 1981). 이는 전통적으로 농촌지역에서 정부여당에 대한 지지투표가 많았고, 도시지역에서는 여당에 비판적이고 야당 지지투표 성향이 확연히 나타났던 현상을 설명하는 단어이다. 일반적으로 농촌지역 유권자들이 교육수준도 낮고 대중매체에 대한 접근성도 도시지역 유권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 정부여당에 의해 쉽게 동원된 결과라고 분석된다. 아프리카에서 이러한 여촌야도 투표행태가 관찰되는 이유는 한국의 과거 경험과 유사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한편, 정부여당

투표 경향에 대한 남녀간 성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무의미했다.

마지막으로, 국가 수준의 통제변인인 민주주의 수준은 아프리카인들의 여당 투표 의향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하겠다. 이는 본 논문의 분석대상이 16개국으로 제한되었기 때문이며, 또한 이들 국가들은 모두 신생민주주의국가들로 민주화 수준에 따른 분산 정도가 그리 크지 않았던 것에서 기인한다고 하겠다.

V. 결론 및 함의

본 논문은 아프리카인들이 선거에서 자신의 투표를 행사할 때 종족투표 행태뿐만 아니라 경제투표 행태도 보여준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 연구결과에 기반이 된 여론조사 데이터가 사하라 사막 이남 16개 신생민주주의 국가들에서 수집된 것이므로, 이 연구결과가 아프리카 전체를 대변한다고 주장하기는 어렵다. 이 지역의 신생민주주의국가들 대부분이 다수의 종족으로 구성되어 있고, 민주주의 이행결과 복수의 정당들이 참여하는 선거제도를 도입했다. 도입된 선거 메커니즘을 통해 아프리카인들은 대표성을 구현하는 종족투표 행태뿐만 아니라 투표자와 정치엘리트를 긴밀히 이어주는 책임성을 구현하는 경제투표 행태도 동시에 보이고 있다.

연구대상 16개국에서 수집된 아프로바로미터 서베이 데이터를 이용한 위계 로짓 통계모델은 아프리카인들은 자신이 속한 종족(혹은 부족) 출신이 정부수반일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확연히 여당 투표 의향이 강하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보여준다. 민주주의 정치체제에서 선거는 선거캠페인 과정을 통해 유권자와 정당 혹은 정당이 선출한 입후보자들 간의 의사소통을 통해 주요한 정보를 교환하는데 기여한다. 이때, 교환된 정보는 유권자의 이념이나 인종적 배경 등과 더불어 자신이 선호하는 정당이나 그 후보자를 선택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동한다. 이에 비해, 아프리카인들이 선거 기간에 제공받는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정보는 그들이 선택을 결정하는데 그 영향

력이 그다지 크지 않았다. 대다수 신생민주주의국가들의 정치현실이 그러하듯이, 정당들이나 후보들 간의 정책적 차별성이나 이념적 차별성이 뚜렷하게 존재하지 않고 오히려 상대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네거티브 캠페인이 주를 이룬다. 또한 동일한 종족들이 가까운 지역에 어울려 지내기 때문에 다른 종족 출신의 후보자나 선거운동원이 그 지역에서 선거운동을 펼치는 것이 그리 순조롭지 않다. 반면, 이러한 제한적인 정보에 비해 자신의 종족 출신이란 요소가 아프리카인들에게 후보자나 정당을 선택할 때 큰 비용 없이 쉽게 획득되는 믿을만한 중요한 정보로 기능한다. 이러한 환경에서 아프리카인들이 종족투표 행태를 보이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다.

또한 위계 로짓 통계모델은 12개월 전과 비교해 자신의 일상적인 생활환경이 향상되었다고 생각하는 아프리카인일수록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들보다 정부 여당에 투표하려는 의향이 더욱 강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회고적 돈지갑 투표행태는 다른 지역, 특히 민주주의 공고화 수준이 높은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투표행태 연구 결과와는 확연히 다르다. 선진민주주의 지역의 유권자들은 회고적 투표행태보다 전망적 투표행태가 강하며, 돈지갑 투표행태보다 사회경제적 투표행태가 좀 더 보편적인 것으로 관찰되었다. 그러나 아프리카인들은 전반적으로 교육수준이 낮고 경제적으로도 궁핍한 경우가 많아 미디어에 대한 제한적인 접근만이 가능하다. 이러한 제약요소들로 인해 그들이 전망적 투표행태나 사회경제적 투표행태를 갖기 위한 필수요소인 다양하고 질 높은 정보를 공급받는데 제한적이다. 따라서, 아프리카인들이 다양한 경제투표 행태들 중 유일하게 회고적 돈지갑 투표행태를 보이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 유정진. 2006. “위계선형 모형의 이해와 활용.” 『아동학회지』 27권 3호. 한국아동학회. pp. 169-187.
- 윤천주. 1981. 『우리나라의 선거실태』.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 전용주·임성학·이동운·한정택·엄기홍·최준영·이소영·조진만·조성대. 2009. 『투표행태의 이해』. 서울: 한울.
- Bratton, M. and van de Walle, N. 1997. *Democratic Experiments in Africa*.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ratton, M, Mattes, R. and Gyimah-Boadi, E. 2005. *Public Opinion, Democracy, and Market Reform in Africa*.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erman, B., Eyoh, D. and Kymilcka, W. 2004. *Ethnicity and Democracy in Africa*. Oxford: James Currey.
- Cho, W. 2010. “Citizens’ Perceptions of Government Responsiveness in Africa.”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43: 1650-1674.
- Cho, W. and Logan, C. “Looking Toward the Future: Alternations in Power and Perspectives on Democratic Durability in Africa.” Afrobarometer Working Paper No. 110.
- Fearon, J., Kasara, K. and Laitin, D. 2007. “Ethnic Minority Rule and Civil War Onset.”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101: 187-193.
- Ferree, K. 2006. “Explaining South Africa’s Racial Census.” *Journal of Politics*, 68(04): 803-815.
- Hesli, V. and Bashkirova, E. 2001. “The Impact of Time and Economic Circumstances on Popular Evaluations of Russia’s President.” *International Political Science Review*, 22: 379-398.
- Horowitz, D. 1985. *Ethnic Groups in Conflict*.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_____. 1991. *A Democratic South Africa? Constitutional Engineering in a Divided Societ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Key, V.O. 1964. *Politics, Parties and Pressure Groups*. New York: Crowell.
- Kinder, D. and Kiewiet, R. 1981. “Sociotropic Politics: The American Case.”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11: 129-161.
- LeBas, A. 2006. “Polarization as Craft: Explaining Party Formation and State Violence in Zimbabwe.” *Comparative Politics*, 38: 419-438.
- Lever, H. 1979. “Ethnicity and Voting Patterns in South Africa.” *Political Studies*, 27: 458-468.
- Lewis-Back, M. 1988. *Economics and Elections*. Ann Arbor: The University of

- Michigan Press.
- Lewis-Beck, M. and Stegmaier, M. 2000. "Economic Determinants of Electoral Outcomes." *Annual Review of Political Science*, 3: 183-219.
- Lindberg, S. 2006. *Democracy and Elections in Africa*.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Lindberg, S. and Morrison, M. 2008. "Are African Voters Really Ethnic or Clientelistic? Survey Evidence from Ghana." *Political Science Quarterly*, 123(1): 95-122.
- MacKuen, M., Erikson, R. and Stimson, J. 1992. "Peasants or Banker? The American Electorate and the U.S. Economy."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6: 597-611.
- McLaughlin, E. 2008. "Beyond the Racial Census: The Political Salience of Ethnolinguistic Cleavages in South Africa."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40(4): 435-456.
- Melber, H. 2010. "Namibia's National Assembly and Presidential Elections 2009: Did Democracy Win?" *Journal of Contemporary African Studies*, 28(2): 203-214.
- Moehler, D.C. 2009. "Critical Citizens and Submissive Subjects: Election Losers and Winners in Africa."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39(2): 345-366.
- Posner, D. 2005. *Institutions and Ethnic Politics in Africa*.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Norris, P. and Mattes, R. 2003. "Does Ethnicity Determine Support for the Governing Party?" Afrobarometer Paper No. 26.
- Price, S. and Sanders, D. 1995. "Economic Expectations and Voting Intentions in the UK, 1979-1987: A Pooled Cross-Section Approach." *Political Studies*, 43: 451-471.
- Raudenbush, S.W. and Bryk, S. 2002. *Hierarchical Linear Models: Applications and Data Analysis Methods*. Thousands Oak: Sage.
- Tufte, E.R. 1978. *Political Control of the Econom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isk, T. and Reynolds, A. Eds. 1998. *Elections and Conflict Management in Africa*.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Young, D. 2009. "Support You Can Count on?" Afrobarometer Working Paper No. 115.
- Whitfield, L. 2009. "'Change for A Better Ghana': Party Competition, Institutionalization and Alternation in Ghana's 2008 Elections." *African Affairs*, 108: 621-641.

Voting Behavior in Africa: Ethnic Voting vs. Economic Voting

Wonbin Cho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 Diplomacy
Sungkyunkwan University

What is the most important factor ordinary Africans consider when they vote for their favorite party or candidate at polling stations? Using Afrobarometer survey data collected from 16 sub-Saharan African countries, this study explores the patterns of Africans' voting behavior. Since early 1990s, more than 40 countries have experienced a democratic transition and many of them still have been regularly holding free and fair multi-party elections. Election is one of the most critical components of democracy and it is the mechanism for citizens to achieve accountability and representation in democratic political systems. This study finds that African citizens emphasize both ethnic voting (representation) and economic voting (accountability) at polling stations. Africans who share the same ethnic group with the chief executive are more likely to vote for the ruling party than those who don't. In addition, Africans who think that their living conditions have improved for last 12 months are more likely to vote for the ruling party.

Keywords: ethnic voting, economic voting, accountability, representation, Africa

